

다문화가족 2세 위한 직업체험 눈길

아시아박음공동체 5월 25일~6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이 실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아시아박음공동체(대표 도제, 광주 길상사 주지)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장성상무대 등 광주 주요 관공서 전문가로부터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꿈을 찾아가는 오색종이 탐험대'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2세대와 초등학교 재학생들에게 각종 직업에 대한 체험과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와 이색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들의 강의를 진행한다.

또 후반기 작업도, 다도체험관, 사진촬영, 미술수업 등 흥미롭고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는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박음공동체 교육담당인 정은경 부장은 "이번 체험활동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인식시키고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미래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중요관공서 등 전문직 설명회
잡월드 등 새 직업 체험 강의
4개국 이주민동화책 편찬 추진**

직업체험을 한 대자초교 4학년 김동훈 학생은 "경찰관들이 학교폭력예방과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됐다"며 "경찰의 고마움을 느꼈다. 경찰관의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 직업체험을 한 대자초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모습.

아시아박음공동체는 오는 10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이상 4개국의 이주민 동화책을 2중언어로 표기한 동화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한편, 체험행사는 광주경찰서(25일), 인방동국악관(6월 1일), 동부소방서(6월 08일), 시청자미디어센터(6월 15일), 장성상무대(6월 22일)에서 각각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에 다녀오면 누구나 부처 된다

호남문화원, 6월 8일부터 아쇼카 순례단 운영

호남문화원은 6월 8일 공주 마곡사 및 청양 장곡사를 시작으로 매달 둘째주 토요일 불교성지를 찾아 떠나는 '아쇼카 순례단-해설이 있는 사찰순례'를 운영한다. 첫 순례는 이준엽 호남문화원 연구실장(사찰문화해설사)이 진행하며 참가비는 3만원으로 점심이 제공된다. 첫 순례지인 공주 마곡사는 643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곳으로 삼(山)밭의 삼이 일

어난 것처럼 골짜기(谷)를 가득 매웠다고 하여 이름지어졌다. 물과 산의 형세는 태극형이라고 하여 《택리지》·《정감록》 등의 여러 비기(秘記)에서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심승지(十勝之地)의 하나로 꼽고 있다. 또 청양 장곡사는 대웅전 두 곳인 국내 유일의 사찰이로 국보2점과 보물 4점을 간직한 고찰이다. (062)383-3538

노덕현 기자

선운사,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열어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는 5월 25일 선운사 유스호스텔 경기장에서 사찰, 상가, 주민들 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운골 공동체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화합한마당에는 마을 사람들과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유스호스텔, 우체국 농업사립 200여 명이 모여 공동체 발전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족구, 농구

공 놀기, 제기차기, 윷놀이 놀이를 겸한 게임을 즐기며 공동체 구성원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승속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선운사와 고창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과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미를 담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선운골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청소년 잔치 한마당 성료

전북파라미터협회, 5월 25일 제17회 모악축제 성료



제17회 모악축제에서는 50여 중교에서 500여 학생들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전북 청소년들의 잔치 한마당인 '제17회 청소년 모악축제'가 열렸다.

전북지역 대표 청소년 봉사단체인 전북파라미터청소년협회(협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5월 25일 김제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주제로 제17회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모악축제는 대표적인 청소년 봉사단체인 파라미터 청소년 협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문예백일장, 사생대회, 전통음악,댄스대회를 통하여 진화과 일체감, 사랑과 화해,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 시키며 시민 의식과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소년 모악축제에는 전북 지역 50여 중·고교 학생 500여명과 선생님들이 참

여했다. 대회는 '탐', '꽃', '가정', '5월' 등의 주제로 운문과 산문의 백일장, 한국화·서양화·만화부문으로 치러졌으며, 댄스 음악 경연대회도 진행했다.

금산사 부주지 성우 스님은 대회사에서 "파라미터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주기 바란다"며 "청소년 모악축제를 맞아 글과 그림, 춤과 노래 등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달라"고 당부했다.

경연을 마친 청소년들은 금산사 미륵전 등 국보와 보물이 산재한 금산사 일원에서 문화재 애호 활동을 펼쳤다. 이와함께 금산사 일대를 청소하며 자연보호 활동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보호 활동도 함께 펼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심으로 아이들 창의성 키워요"

동원 광주지구, 5월 26일 연꽃문화제 개최

동원 광주지구(회장 정윤)는 5월 26일 광주 무각사 앞마당에서 '2013년 제6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작품활동 시간이 진행됐으며 참가한 아이들은 문화공헌, 페이스페인팅, 리본만들기, 클레이 연필꽂이 만들기, 포크아트, 책갈피 만들기, 제기차기, 방송댄스, 국악, 종이접기 등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연꽃문화제는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원이 주관해 지역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984년부터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지구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부터 강원지구를 시작으로 부산지구(5월 11일), 울산지구(5월 17일), 밀양지구(5월 19일), 제주지구(5월 22일), 광주지구(5월 26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정윤 스님은 인사말에서 "연꽃문화제를 통해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한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윤 스님은 이날 연꽃문화제의 주안점을 '창의성'이라고 강조하고, 심사의 규정을 구두로 짜입제, 독창성과 창의성, 성실한 표현, 정확한 맞춤법에 두었다고 밝혔다.



무각사 앞마당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

이날 입상자에게는 대상(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장상), 최우수상(광주시장상), 특별상(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상), 우수상(동원 광주회장상·광주시교육감상), 가작(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표상·학정서예연구원장상), 한마음상(단체·자비선행회 이사장상) 등이 수여됐고 자전거, 디지털 카메라 등 푸짐한 선물이 수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향봉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법회

선(禪)·교(敎) 겸비하고 오직 수행정진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진 향봉 향눌(香峰 香訥, 1901~1983)스님의 열반 30주년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립 송광사(주지 무상)는 5월 28일 경내 사자루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율곡은 정신을 받들어 열심히 수행정진에 나아가자'고 결의했다.

추모법회에는 방장 보성 스님과 동당 범흥 스님을 비롯해 향봉 스님의 상좌스님들과 총림 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헌향, 대중삼배, 행상소개 및 추모입정, 헌공, 헌다, 헌화, 문도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도대표인 청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열반 30주기를 맞아 많은 대중들의 큰스

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향봉 스님은 1940년 송광사에서 석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2년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1953년 만월산 백운사에서 20여 년간 주석하며 후학을 지도했다. 1954년에는 교단 정화로 정화불사가 시작되면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임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에는 출가본사인 송광사 임경당으로 주석처를 옮겼다. 스님은 1983년 5월31일 서울 법원사에서 세수 83세, 법랍 44세의 일기로 원寂에 들었다.

한편 송광사는 향봉대선사어록인 '운수산고'를 재발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주시 '목조삼세불좌상' 전북문화재 지정

군산 상주시 목조삼존불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21호로 지정됐다. 군산시는 5월 28일 군산 상주시 목조삼세불좌상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제22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상주시 목조삼세불좌상은 대웅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7호)에 봉안돼 있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로 이뤄

진 삼존불이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인균의 불상과 옷 주름의 표현방식이 비슷하고 전반적인 양식 특징으로 미뤄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는 606년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사찰로 고려 공민왕 11년(1362)에 나옹대사가 중창했다.

동제 전북지사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를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과정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아개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양에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격의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